

‘고3 입시는 온 식구가 함께
치른다’는 말이 있습니다.
힘들어하는 아이가 안쓰럽다
가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
싫어 화가 치밀어 오르기를
반복했던 1년. 체감상 3년은
되는 것 같습니다. 아이를
낳아보면 부모 마음을 안다고
했나요. 입시를 치러보니
옛날 기억들도 새록새록.
다른 엄마들도 다 그렇겠지요?

토닥토닥
Talk Zone

토·톡·존

수험생 히스테리, 이제 끝!

D-200, D-100, D-50... 언젠가부터 아이의 수능 날을 나의 해방일이라 여겨왔어요. 고3 엄마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했을 법한 혼잣말. ‘수능만 끝나봐라!’ 대입을 앞둔 아이가 짠하고 안쓰럽다가도 시도 때도 없이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뿜어낼 때면 이 수험생 히스테리를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는지, 입시라는 큰 관문 앞에서 아이의 인성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. 저도 풀 곳이 필요했어요. 아이 때문에 속이 끓어 오를 때마다 재봉틀을 꺼내 가방, 앞치마, 넥타이를 하나둘 만들기 시작했고 11월이 되자 가게를 차려도 될 정도로 수십 개가 쌓였지요. 드디어 수능 날! 시험장에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더군요. 주책없이 눈물 흘린 사람이 저만은 아니겠죠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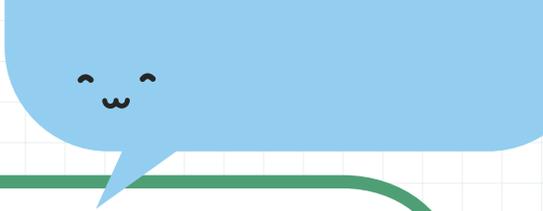


분노를 원동력 삼아 만든 작품들. 그렇게 미성을 끝도 없이 돌렸다!

“우리 아이가
달라졌어요”

취재 · 사진 이도연 리포터 ldy@naeil.com





화장실 청소하는 아들의 가~압동적인 뒷모습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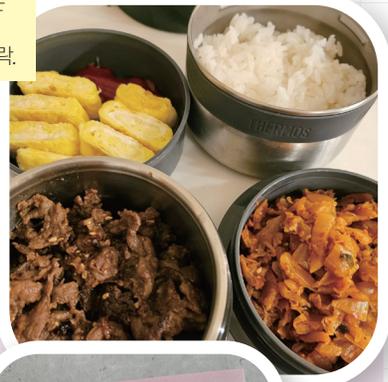
이젠 예쁜 말교실 수강?

수능이 끝나고 며칠 뒤, 평소와 다름없이 꾸그리고 앉아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느낌이 싸~하더군요. 돌아보니 아들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어요.

“왜? 뭐 필요해?” “엄마~ 앞으로 화장실은 내가 청소할게.”

뜬금없는 소리에 처음에는 ‘뭐 사고 싶은 게 있나?’ 싶었죠. 그 뒤로 재활용 쓰레기장을 물어보는가 하면(이사 온 지 4년 만에 첫 질문) 밥상에 수저도 놓아주더라고요. 동생한테 건네는 말투도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. 성을 떼고 이름만 부르기 시작했거든요. 덕분에 동생의 말투도 나긋나긋해졌고요. 자연스럽게 집안이 평온해졌어요. 한때는 아들이 저 모르게 ‘말 입게 하는 학원’을 다니나 싶었는데요. ‘입시 스트레스’를 털어낸 아이는 마법처럼 말랑말랑해졌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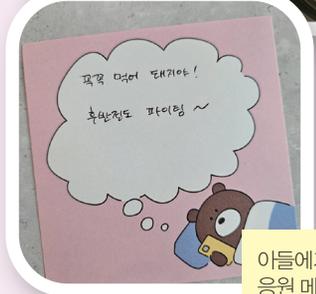
하늘이 두 쪽 나도 '밥은 먹어야 하는' 아들님을 위한 엄마표 정성 도시락.



대를 이은 감동의 도시락(두 번은 없다!)

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'그날' 이 생각났습니다. 엄마가 고3 동안 종종 차로 등교를 시켜 주셨는데 당시 몸무게가 많이 늘어서 교복이 꽉 끼었죠. 제가 벌인 일(?)이었지만 괜히 엄마에게 투덜댔고요. 그날도 등굣길에 수험생 유세를 떨었나 봅니다. 1년도 못 입을 새 조끼를 사달라고 졸랐거든요. 그런데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 엄마가 차를 세우시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어요. “내려.” “날도 추운데 설마’ 싫어 안 내리고 버텼으나 엄마는 꼼짝도 안 하셨어요.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조용히 내렸죠. 그 뒤로 고3 유세가 쉽니까, ‘순한 양’버전 시~작. 아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.

지난 수능 당일 새벽, 아들의 도시락을 싸는데 25년 전 수능 때 먹었던 엄마의 도시락이 떠올랐어요. 국어 시험을 망친 여파가 수학까지 이어졌죠.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도시락을 열었는데 엄마가 싸준 불고기 냄새가 확 올라오면서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. 덕분에 수능을 완주할 수 있었어요. 아들이 좋아하는 불고기, 달걀말이, 볶음김치를 싸며 혹시나 긴장해서 도시락을 못 먹을까 봐 걱정되어 쪽지에다가 ‘꼭꼭 먹어 돼지야! 후반전도 파이팅~’이라고 적어 넣었어요. 그날 저녁 아들이 저에게 놀라운(?) 말을 하더군요. “국어, 수학 때 멘탈 털렸는데 엄마 쪽지 보고 그래도 입맛이 확~ 나더라! 근데... 양이 많이 적더라~ 담(?)엔 팍팍 넣어줘!” @



이들에게 보낸 응원 메시지.